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엇더히며 저런들 엇더히료
㉠ 草野(草野) 愚生이 이러타 엇더히료
흐믈며 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

烟霞로 집을 삼고 風月로 벗을 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 가뇌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淳風이 죽다 하니 眞實로 거짓말이
人性이 어지다 하니 眞實 올흔 말이
天下에 許多 英才를 소겨 말슴흘가

幽蘭이 在谷하니 自然이 듯디 조희
白雪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조해
이중에 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로다
[A] 떼 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 엇더타 ㉡ 皎皎白駒(皎皎白駒)는 멀리 므슴 흐논고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 佳興이 사롭과 흥가지라
흐믈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니 그지 이시리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灑흔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흐애라
이중에 往來風流를 닛러 므슴흘고

雷霆이 破山흐여도 聾者는 못 듯느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는 못 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 男子로 聾瞽긋지 마로리

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古人 못 보
古人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니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當時에 녀든 길흘 몇 히를 브려 두고
어디 가 든니다가 이제야 ㉢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 오나니 녀디 므슴 마로리

靑山은 엇제히여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엇제하여 晝夜에 긋지 아니논고
우리도 ㉣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 흐리라
「 愚夫도 알며 흐거니 그 아니 쉬온가
[B] 聖人도 못 다 흐시니 그 아니 어려온가
「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 늙는 줄을 몰래라

01

표현상 특징 파악 · 객관식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자연물을 병치하여 인간사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세속적 가치의 허무함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원근의 대비를 통해 공간의 입체감을 형성하며 화자의 고립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의 전환을 피하여 화자의 정서적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02

[보기] 종합 감상 · 객관식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항의 「도산십이곡」은 자연에 대한 완상(玩賞)을 다룬 전 육곡과 학문 수양의 도리를 다룬 후육곡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의 질서에서 인간이 본받아야 할 영원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 수양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녀든 길'은 선현들이 닦아 놓은 학문과 수양의 길을 상징하며, 화자는 이를 통해 세속적 욕망인 '녀든 길'을 경계하고자 한다.

- ① '천석고황'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애착을 성리학적 수양의 토대로 삼겠다는 의지겠군.
- ②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소망은 자연의 순수함을 닮으려는 도덕적 자기 검열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피미일인'을 잊지 못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도 유교적 충의 이념을 견지하며 사회적 책무를 의식하는 것이겠군.
- ④ '교교백구'가 멀리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한 의문은 학문 수양보다 세속적 명리에 집착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겠군.
- ⑤ '녀든 길'을 다시 걷겠다는 다짐은 과거의 방황을 청산하고 자연의 영원한 물리(物理)를 탐구하겠다는 결의겠군.

03

시어의 의미 파악 · 객관식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적 배경으로, 세속과 대비되는 은거의 장소를 의미한다.
- ② ㉡: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경지를 상징하며,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을 나타낸다.
- ③ ㉢: 세속적 방향을 끝내고 본연의 학문 수양 자세로 복귀했음을 암시한다.
- ④ ㉣: 청산과 유수의 영원성을 본받아 학문 정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⑤ ㉤: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학문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여 노쇠함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04

화자의 태도 및 심리 · 객관식

윗글의 화자가 [A]와 [B]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자연의 역동성을 예찬하던 화자는 [B]에서 인간 수명의 유한함에 대한 탄식으로 전이되고 있다.
- ② [A]에서 타자의 선택에 의구심을 표하던 화자는 [B]에서 학문의 역설적 성격에 몰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A]에서 공간적 배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던 화자는 [B]에서 신분 질서의 고착화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하던 화자는 [B]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 ⑤ [A]에서 세속과의 단절을 선언하던 화자는 [B]에서 지식 습득의 난이도에 따른 차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05

소재의 기능 및 의미 · 객관식

윗글의 '靑山(청산)'과 '流水(유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② 인간의 가변성과 대비되는 자연의 영원성을 표상한다.
- ③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 ④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적 소재이다.
- ⑤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초월적 세계를 상징한다.

06

말하기 방식 분석 · 객관식

윗글의 '聾者(농자)'와 '瞽者(고자)'를 활용한 화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체적 결함을 회화화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
- ②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자연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③ 감각의 한계를 지닌 대상을 제시하여 경계와 자각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④ 타인의 불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⑤ 결핍된 존재에 대한 연민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07

내용의 사실적 이해 · 객관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연을 집과 벗으로 삼아 태평성대를 누리며 늙어가고 있다.
- ② 화자는 인성이 어질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영재들을 신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골짜기의 난초와 산의 백설을 보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린다.
- ④ 화자는 만 권의 책을 읽는 생활 속에서 끝없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 ⑤ 화자는 고인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나 그들이 남긴 학문의 길은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08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 · 객관식

윗글의 화자가 '녀둔 길'에 대해 보이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며 현재의 편안함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②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학문적 성과를 과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 ③ 중단했던 수양의 길을 되찾아 정진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④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포기하고 있다.
- 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인위적인 노력을 거부하는 무위자연을 추구하고 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순박한 풍속이 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를 긍정하며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있다.
- ③ ㉢: 만물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 독서와 학문에 전념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정신적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변함없는 푸름을 유지하는 청산처럼 학문 수양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한다.

윗글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점차 내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가변성을 대조하여 인생무상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도리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고 있다.
- ④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자연 경관에 대한 묘사와 개인적 회고를 병치하고 있다.
- ⑤ 대화의 형식을 빌려 가상적 청자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보기〉는 윗글의 작가가 지은 다른 시조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예어 가는고
- 황진이 시조 -

- ① 윗글의 '靑山'은 학문 수양의 영원성을 상징하지만, 〈보기〉의 '靑山'은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겠군.
- ② 윗글의 '流水'는 중단 없는 정진의 모델이지만, 〈보기〉의 '녹수'는 유동적인 임의 감정을 비유하는 것이겠군.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인간의 내면적 가치와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군.
- ④ 윗글의 화자는 자연을 닮으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지만, 〈보기〉의 화자는 자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군.
- ⑤ 윗글의 '그치지 마라'는 자연의 순리를 거부하려는 의지이고, 〈보기〉의 '변할손가'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태도겠군.

문맥상 '년되 무음'과 가장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시구는?

- ① 泉石膏肓
- ② 太平聖代
- ③ 彼美一人
- ④ 녀든 길
- ⑤ 往來風流

윗글의 '樂事(낙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얻는 심미적 즐거움을 포함한다.
- ② 수많은 책을 읽으며 성현의 가르침을 깨닫는 지적 유희를 의미한다.
- ③ 세속적 명예를 얻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는 구별되는 정신적 가치이다.
- ④ 우부와 성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절대적 평등의 상태에서 오는 환희이다.
- ⑤ 세월의 흐름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화자를 몰입시키는 근원적 힘이다.

윗글에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烟霞 - 風月
- ② 幽蘭 - 白雪
- ③ 鷗머기 - 皎皎白駒
- ④ 玩樂齋 - 萬卷生涯
- ⑤ 靑山 - 流水

윗글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를 인간 사회의 규범으로 치환하여 사회 개혁을 주도하려 한다.
- ② 학문 수양의 영원성을 추구하며 도덕적 자기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다.
- ③ 세속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은둔을 통해 개인적 안빈낙도에만 전념하려 한다.
- ④ 성현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독창적인 학문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 ⑤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통해 신비주의적 종교 체험을 일상에서 구현하려 한다.